



Hello! I am Sister Jean Augustine, a Sister of Charity of Seton Hill who entered the congregation on September 8, 1953 and, please God, will remain until my final departure whenever that will be. "It's a wonderful life," sums up these past 63 years which include a variety of experiences in several professions, and different locations with many interesting, dedicated and challenging individuals.

Taught by the Sisters of Charity at St. Philip Grade and St. Luke High Schools, I thought seriously to change my attraction to the Maryknoll Sisters when a dear friend suggested that maybe I should consider instead the group who taught us. . .the rest is history.



After novitiate, Mother Claudia sent me to teach 4th grade then 7th-8th; from then on I served as secretary, councilor, assistant principal, principal, social worker, administrator/supervisor, case manager, besides a few other assignments along the way. The field of social work will focus this introduction.

During the 12 years in congregational leadership, I became involved in social justice issues and upon leaving office asked permission to attend the National Catholic School of Social Work at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in DC. There I earned an MSW with a concentration on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The MSW prepared me well for many opportunities – Director of the Parish Social Ministry through Catholic Charities, Pgh. Diocese; Therapist in a Senior Partial Hospital Program, Northern/Southwest MH/MR/D&A, Inc.-Pgh.; Founder and Director of Phoenix Lodge, a Long-Term Structured Residence for SPMI consumers; Executive Director of Catholic Charities, Diocese of Gary; Program Director, on two occasions, of Continuing Day Treatment Programs in New York State. Since State Licensure is required, I continue to attend seminars, workshops, professional trainings to keep up with developments especially in behavioral and mental health treatment.

St. Louise de Marillac, patroness of social workers, characterized in her ministry of service what now harmonizes with the life and spirit of the Sisters of Charity. We consider the person

in the environment through application of knowledge, experience, and compassion in a mix of good judgment and firmness. Faithful and tireless companions worked with me to accompany folks in need through direct and indirect actions. We've laughed, cried, scolded, reasoned, and walked with those in our attempts to help persons achieve change or adjust to their environment. We won a few and have lost some others . . . but in God's plan . . . it's been a wonderful life!





안녕하세요! 저는 진 오거스틴 수녀입니다. 1953년 9월 8일 수도회에 입회했고 언제 일지 모르지만,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사랑의 수녀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느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 63년동안의 삶은 최고였습니다. "정말 멋진 삶이었지요!" 여러 가지 사도직에서 흥미롭고 헌신적이며 도전적인 사람들과 함께 여러 다른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세인트 필립 초등학교와 세인트 루크 고등학교(St. Philip Grade and St. Luke High Schools) 에서 우리 수녀님들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메리놀 수녀회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저에게 우리 수녀님들의 회를 생각해보라고 제안했고 그 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아

시다시피 이렇게 사랑의 수녀가 되었지요!



수련자가 된 후 클라우디아 총장님은 저를 4학년 선생님이로 파견하셨고 그 후에 7학년과 8학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수녀회의 서기, 이사, 교감, 교장, 사회복지, 행정/ 수퍼바이저, 사례 관리자(case manager) 등 그 외에도 다른 사도직을 맡아 일했지요. 여기서는 사회복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회 이사직을 맡았던 12년 동안 저는 사회정의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직을 마치면서 DC에 위치한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가톨릭 사회복지 학교(National Catholic School of Social Work at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청했지요. 거기에서 저는 정책, 기획, 행정을 중심으로 공부하여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석사과정 공부를 통해 저에게 오는 많은 기회를 준비 할 수 있었지요. - 피츠버그 교구 가톨릭 자선단체들의 교구 사회사목 담당, 피츠버그 재단의 복부/남서부 정신보건/정신지체/약물 및 알콜 중독 노인 병원 프로그램의 치료사, 장기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장기 기거 시설인 피닉스 로지의 책임자, 게리 교구 가톨릭 자선단체의 상임이사, 뉴욕 주의 정신 질환 환자를 위한 재활센터의 프로그램 담당자(2차례 재직)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세미나, 워크샵, 전문트레이닝 과정에 참석하여 특히 계속 발전해나가는 정신-행동 치료 분야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나갔어요.

사회복지사의 수호 성인인 성녀 루이즈 드 마리악의 특징은 사도직 봉사 안에서 사랑의 수녀회의 삶과 정신을 조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함하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 연민을 통해 사람과 그의 환경을 생각하지요. 성실하고 지칠 줄 모르는 동료들이 저와 함께 일하며 직, 간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동반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별도 하며 함께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해나가고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조절해나가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을 했지요. 어떤 때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멋진 삶이었답니다!

